

포교 · 신행 소식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13~14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생과 진행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장애우 대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건설) 내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숨 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탄웅스님은 "다문화 가정, 새터민에 이어 장애인까지 포용하여 마음치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 다문화 소녀에게 의료 지원금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은 7월 17일 '다문화가정 및 2세 의료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소녀 아리아나 레자이에게 목욕의자, 에어컨 등을 포함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선천성 뇌병변을 앓고 있다. 다문화 소녀 레자이는 날마다좋은날이 협찬한 다문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KBS오아시스에 출연했다. 당시 부족한 집안 형편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가 힘든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아 큰 감동을 전했다.

선수행으로 사회구현 공로 인정

부산 무심선원, '제1회 심우문화상 수상'

수행중심의 재가선원인 부산 무심선원이 제1회 심우문화상을 수상했다. 심우문화상은 심우당문화재단이 제정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공헌한 인사와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을 충실히 수행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공헌했다. 시상식은 7월 25일 낮 1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 에머랄드홀에서 김맹석 심우문화상 설립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귀농 포교' 해야

귀농 트렌드 변화, 실상사·마곡사 등 귀농공동체 눈길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귀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불교계가 귀농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귀농'은 특별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십여년 전 IMF 무렵 귀농은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도시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없게 돼 마지막으로 찾는 방안으로 인식되곤 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귀농·귀촌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진행되는 불교귀농 이론교육에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가 서울 신정동에서 진



다양한 기관에서 세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등 최근 '귀농'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50대 귀농·귀촌 폭발적 증가

맞춤형 교육 인기...불교계 미흡

사찰지 활용 포교 접근 필요

행하는 불교귀농학교 등에는 오히려 사람이 줄고 있다. 이동호 불교귀농학교 팀장은 "예전에는 귀농관련 교육기관이 많지 않아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몰렸다"며 "지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각 세대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교귀농학교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이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정각원 각산 스님 초청 2차 강좌

초기불교-간화선 통합 '깨달음의 길 안내'

초기 불교와 간화선이 만나 대중들에게 심도 있는 수행법을 제시해준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강좌를 9월 2일~11월 18일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진행한다. 각산 스님은 아잔브람 스님의 명상법과 한국의 간화선을 통합한 정혜상수의 실참을 중심으로 실제적 깨침의 세계를 강의한다.

간인 간화선의 '이 뭣고?' 화두수행법은 부처님의 초기 수행법들과 어떻게 일치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 초기경전의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간화선은 수행방법론을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며 "간화선은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방식의 위빠사나(관심법)보다도 더 강력한 통찰로 이끄는 지혜와 선정의 내면관찰 수행법이다. 왜냐하면 간화선은 고요하고 깊은 삼매의 세계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사마타(평온)-위빠사나(관찰)의 진화발전된 수행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8월 10~11일 인제 만해마을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는 8월 10~11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창립 93주년을 기념한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오라 강원으로! 꿈꾸라 평화 통일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불청 창립 93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청년불자의 상을 정립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첫째 날인 10일 오후 7시에 전야제를 시작으로 △지구·지회 장기자랑 △초청공연(김현성, 이명우) △한반도 평화기원 핸드 프린팅을, 11일 오전 10시부터 △대불청대상 시상식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불자 선인 △대회기 이양 등 분대회로 진행된다.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포스터

만해마을 등 인제군일원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에 열리며, 본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예정이다. 전주호 대불청 회장은 "만해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청년불자들이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738-1920

Advertisement for the 19th General Ele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Chairman, and Supervisors of the Korean Buddhist Law Associatio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election date (July 17, 2013), candidates, and contact information.